

<평가 목록을 활용한 공공언어 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토론문

충북대 김경열

선생님의 논문 잘 보았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평가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안 중 단어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형태소 분석기를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상 오류 유형에 맞는 형태소 분석기를 따로 불러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평가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대해 모든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복 진단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어휘를 등재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양의 어휘를 수록해야 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음이의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울산대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만든 대용량 말뭉치 기반 형태소 분석기인 UTagger를 쓰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형태소 분석과 동형이의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파이썬에서 UTagger 구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언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